

부안 곰소항 불법 무허가 건축물 난립

건축된지 30년이 지난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41, 842번지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수산물 시장 건물의 시설 노후 및 불법 증개축 건물들의 관리소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곰소 찻갈이 전곡적 유명세를 타면서 들어선 곰소항수산물종합시장 건물을 중심으로 불법 증·개축된 점포는 40~50여개로 확인되고 있다.

부안군이 지도 관리에 뒷집을 지고 있는 동안 곰소항 회타운 주변에까지 불법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섰다.

또 곰소항 수산물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철골 구조물을 세워 불법 건축물 증축이 이뤄지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건물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은 생계 때문에 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관할 군청에서

수산물시장 주변 증·개축된 점포 40~50여개 군·자산관리공사, '나 몰라라' 관리책임 전가

이러한 상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서 수산물 시장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은 이곳 시장의 열악한 시설물 상태와 환경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할 군은 시정조치는 커녕 담당 기관은 따로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실제 곰소리 841번지, 842번지 일대 건축물들은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되고 있다.

부안군은 관리 대상이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물 노후 관리 문제나 열악한 공간 시설 등을 곧바로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 조치보다는 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군과 자산관리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수십 만 명이 찾는 곰소항 한 가운데 불법 증개축과 무허가 건축물 등이 난립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난 곰소항 찻갈이를 사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과 주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철골 구조물로 열기설기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어서 주변 상인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곰소를 찾은 이모

(53)씨는 "여름에 피서를 위해 지인들과 함께 격포에 들렀다가 가는 길에 곰소 찻갈이를 사려고 찾았는데 녹슨 철골구조물에 의지한 불법건축물에 들어선 점포들이 위험천만해 보인다"며 불안감을 털어냈다.

그는 또 "부안 곰소 찻갈이 유명하다고 해서 지인들과 함께 사갈 생각이었는데, 열악한 시설에 부실한 관리 상태를 보고는 소릴할 생각이 사라졌다"며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부안군 관계자는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이나 위생관련 사항은 단속을 통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면서 "2015년과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건물과 무허가 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한다"며 "국유지 관리 기관에서 특별한 대안을 내놔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장기기증 '귀감'

생명나눔 감동 확산 올해 34명 목숨 구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명재)에 뇌사자들이 장기기증이 이어지면서 생명나눔 사랑 실천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뇌사판정을 받은 윤덕철(58세)씨가 간장과 신장2개 각각 2개 등 5개의 장기를 기증해 만성질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가족들은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로 건강관리를 해오면서 누구보다 건강했던 윤씨에게 더욱 슬픔이 컸고, 뜻대한 삶에 대한 아쉬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자하는 마음에서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분이었기에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다면 값진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가족회를 통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다행히 5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고인에게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에는 윤씨에 앞서 지난 4월 뇌사판정을 받은 50대의 여성이 신장장 기증에 1명이 목숨을 살렸으며, 7월에도 50대 남성이 장기를 기증해 5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전북대병원에는 올해 8월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만 8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34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데 일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

문화재를 활용해 전주의 색다른 야간 풍경을 보고 즐기는 '전주야행'이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매료시켰다.

전주시는 지난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단순히 도시의 경치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한 여름 밤의 역사문화 투어 프로그램인 '전주야행, 천년벚꽃'을 진행했다.

전주가 품은 옛 건축물과 유형문화유산, 문화콘텐츠를 결합시킨 전주야행프로그램은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전주야행에서는 경기전과 오목대,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한 한국 역사와 문화의 상징공간 2곳에서 품격 높은 36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먼저, 경기전에서는 왕과 궁중의 전통의례였던 헌다례(獻茶禮)가 거행됐고, 오목대에서는 문화작품 속에 등장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낭독하는 대회가 열렸다. 또, 전주향교에서는 선비의 풍류의 상징인 산조음악이 연주됐다.

전동성당에서는 미사당 공간의 품격과 특징을 살려내 성(聖)음악 연주회가 진행되었고 전주천에서는 자연과 결합한 한국적 정서가 가장 많이 담긴 살풀이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마당에서 열린 전주야행 기념식에는 1,000여명

시, '전주야행' 전략적 육성 문화재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야행, 천년벚꽃' 개막식에서 시민들이 영화 '왕의 남자'에서 어릿광대로 나서 멋진 줄타기를 선보였던 권원태씨의 줄타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 참석한 가운데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연주와 함께 사라져 버린 우리 그림자 공연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되살려 보는 그림자 공연이 시연됐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전주야행의 흥행을 위해 예부터 온 백성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전통연희 중 하나인 줄타기와 버나놀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어릿광대로 나선 권원태 씨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멋진

줄타기를 선보였던 예인으로, 줄 위에서 재담과 노래를 섞어 각가지 재주를 부려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림자 공연 이후에는 시민 및 관광객이 하나가 돼 함께 강강술래를 하며 문화재의 밤 풍광을 색다르게 즐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 설치된 1000여송이의 형형색색 빛의 꽃들은 달빛과 어

우러져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전주야행은 전주의 문화재를 밤에 즐기는 색다른 콘텐트로 낮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전주야행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문화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열수' 시민들에게 호평 현재까지 15개 단체서 주문

전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 병입수 '전주열수'가 점차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용이 늘고 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생산된 전주열수가 현재까지 15개 단체 및 기관이 주문생산한 약 7000병 정도가 출고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현재 주문생산이 예약된 수돗물 병입수도 약 3만여병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2일 한일레슬링협회(회장 지진산) 임원진들은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레슬링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이 맛있고 시원한 전주열수 시음회를 갖고 무더운 날씨에 갈증을 푸는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시음회에 참여한 한일레슬링협회 회원은 "전주열수가 서울의 아리수보다 청량감이 있고 깔끔하다"면서 "용담호 1급수 원수를 정수 처리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수돗물이라 맛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기접놀이 백중 정기공연 펼쳐

일상 속에 살아있는 민속을 표방하는 전주기접놀이 백중 정기공연이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통문화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렸다.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지난 1998년부터 정월대보름과 백중에 효자·산천등을 중심으로 기념공연을 펼쳐왔다.

이날 전주기접놀이보존회는 야외공연을 마친 후 한벽궁에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전주기접놀이 준비과정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 자리에는 김승수 시장도 참석해 폭염 속에 공연을 이끈 기접놀이 단원들의 땀에 젖은 손을 빠짐없이 어루만지며 격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주기접놀이의 원형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오늘날 전북을 대표하는 민속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단원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정읍서 경운기 추락 80대 숨져

밭일을 다녀오던 80대 노인이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8시16분경 정읍시 고부면의 한 도로에서 A(86)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이날 부인과 함께 밭일을 하고 돌아가던 중 경운기가 2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